

小火器시장,

불확실한 미래(2)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해외사업팀

유럽과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 업체를 벗어나면 상황은 더욱 저조하다. 강습 소총 및 사격 지원 무기의 면허 생산을 넘어서 국내 개발 및 제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얼마간의 수출까지 달성코자 하는 소위 성장 국가들의 노력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실패로 끝났다.

상당한 초기 투자가 적절한 수익으로 보상받지 못하였으며, 싱가포르의 Chartered Industries나 남아공의 LIW-Vektor(Denel의 자회사)같이 기술적 능력과 사업적 추진력을 갖춘 기업들조차 자사 제품(각각 CIS SAR-80/88 강습 소총, ULTIMAX 경기관총, LIW R4/R5 강습 소총, SR77/Mini-SR77 경기관총) 출하를 위

해 "손안에 있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적절한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 DSA '98 전시회에서 선보인 Vektor CR21 신형 강습 소총과 같이 기술적 특징이 아니라 혁신적 인체공학을 도입하여 신중한 도약을 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고 상업적인 돌파구 마련을 희망할 수도 있지만, 그 전망은 (특히 한 정당 1,000달러라고 알려진 가격에 비추어) 밝지 못하다.

강습 소총과 그 파생제품 시장의 현재 특징이 전적인 승리자 부재, 극소수의 성공적

▼ 오스트리아 Steyr사의 AUG



인 설계, 수많은 낙오자들
인 반면, 분대 사격 지원
임무를 위한 5.56mm 경기
관총에 있어서 상황은 전
혀 다르다. 이 틈새시장에
서는 FN MINIMI가 사실
상 모든 경쟁 제품을 축출
할 정도로 시장을 지배하
게 되었다. 실제 MINIMI는
FN사의 매출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제품이
다.



▲ 폴란드 Lucznik사의 PM-98 SMG

■ 휴대 무기와 기관단총

강습 소총 시장이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다면 (양호하게 설계, 제작된 무기의 오랜 사용기간 및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요 군에서 전혀 다른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황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권총과 기관총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2가지 무기의 전투 유용성은 특수 부대용이 아니면 말 그대로 단거리 자기방어로 제한되는 추세이다.

'80년대 FN Herstal은 P90 무기/탄약 체계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이는 다양하면서 때로 자체적으로 상충되는 개인방어화기(PDW)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임무상 5.56mm 강습소총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항시 소지할 수 없는 후방제대 업무(레이더 및 통신 운용요원, 운전병 등)를 맡은 모든 병력을 무장하려는 것이다.

이 벨기에 업체의 접근 방식은 매우 혁신적이고 야심찬 것으로 널리 사용되는 9×19 Para 탄약을 발사하는 기관단총 및 반자동 권총을 점진적으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FN의 설계자나 마케팅 담당자는 소위 기

준 군대의 실제 준비태세를 아주 잘못 계산하였다. 즉 이들은 단지 후방제대 요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아주 새로운 총/탄약 체계를 채택코자 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에 따르는 재정, 군수상의 무거운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사실상 지금까지 판매된 P90(약 15,000

정)은 특수 부대, 특공대, 경찰 개입 팀이나 유사 조직에서 소량씩 구매한 것이며, 애초 예상한 시장에서의 돌파구는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후방제대 인원용으로서 P90은 반자동 권총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러우며(이러한 논란은 P90과 같이 5.7×28탄을 발사하는 신형 FN Five Seven 권총 개발을 위한 일부 근거가 되었다) 기관단총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으로 여겨진다. FN Herstal은 현재 새로운 잠재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즉 소위 일반 경찰로서 이들이 사용하는 표준 무기(대부분 피스톨과 리볼버이며 일부 기관단총 및 산탄총)는 방탄조끼를 입고 카라시니코프 로 무장한 범죄자들을 대처하기는 부적절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제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FN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MINIMI 경기관총의 성공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Herstal의 일부 직원은 다가오는 먹구름을 이미 보고 있다.

P90이 돌파구 찾기를 기다리는 한편, 특히 Beretta 92F와 SIG-Sauer P228 계열을 포함하는 소수의 "수퍼스타"가 서방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준 휴대 무기의 세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강습 소총의 경우와 같이, 이 분야의 시장도 향후 적어도

20~25년간은 상당히 열어 붙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예외는 미국 특수전 사령부를 위한 K&K USP/Mk23처럼 특수 부대의 특별한 소요를 위해 개발되어 소량 생산되는 아주 정교한 특수 모델이다.

업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부유한 군대로 대표되는 잠재적인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들 군대는 우수하기는 하지만 현재는 노후화된 Browning HP35와 같이 오늘날 군사 소요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휴대 무기로 아직까지 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길을 가고자 하는 업체들은 앞에서 말한 "수퍼스타"의 굳건한 위치뿐만 아니라, 특히 체코 Ceska Zbrojovka (CZ)와 폴란드 Zaklady Metalpwe Lucznick(동사 제품은 Radom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 등 중부 유럽 기업의 점차 강해지는 경쟁력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들 기업은 매우 공격적인 상업적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체코의 CZ75, CZ85, CZ100 반자동 피스톨과 폴란드의 MAG95, GLAUBERTY, PM98 피스톨 및 기관단총 같은 우수한 무기들의 나토(구경 9×19 Para)형을 서방측 평균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CZ2000 및 폴란드 BERYL(5.45×39 TANTAL의 5.56×45형)같은 강습 소총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80년대 중반까지 일부 전문가들 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Glock이라는 오스트리아 업체가 반자동 피스톨 국제시장에서 빠르게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

하였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Glock이 기초 설계에서 시작하여 제품 다각화를 기할 수 있는 기술의 선택에 개발 중점을 두는 것뿐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와 홍보에 있어 Steyr의 선례를 따랐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 회사의 제품은 군과 경찰용으로 적합한 다양한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모두는 폴리머 부품의 광범위한 사용을 선도한 전설적인 Glock 17을 기초로 한 것이다.

스위스 주요 업체의 고위 간부는 "군사적 관점에서 반자동 피스톨은 대체하거나 제거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영국군과 같이 몇몇 군에서는 휴대 무기를 보유하는 총 인원이 실제 증가추세에 있는 정도다. 그러나 상업적 관점에서 적어도 향후 20년은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의미는 피스톨이 인도적 지원, 평화 지원 및 경찰 임무 등의 범주에서 필수 장비로 남을 것이 분명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중요성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 저격총: 틈새 시장

최근 다국적 평화유지군 작전의 일부 특징은 저격 대책 임무를 중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여러 군에서 매우 정교하면서 사거리가 긴 소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틈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업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수년 사이 다양한 구경(나토 표준 7.62×51부터 12.7×99 이상까지)과 형상(단발, 노리쇠 작동 수동 연발, 반자동)을 가진 고도 정밀 소총의 과잉 개발과 공급을 가져왔다.

불행하게도 이 새로운 시장조차 급속하게 포화상태가 되었으며 이제 거의 붕괴 직전인 상태이다. 많



▲ FN Herstal사의 P90소총

은 업체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이 부문의 소요는 원래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고도 정밀 소총의 군사 계약은 일반적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무기를 개발·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재정, 전문 인력 자원은 뛰어난 조건이 아니면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이 시장은 기존의 우수한 업체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다. Oberndorf의 한 엔지니어는 "세계적으로 군에서는 사거리가 긴 대물/대인용으로 Barrett를 아주 선호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방진영 군에서 저격병용으로 이미 Accuracy International range를 선정하였는데 또다른 고도 정밀 소총 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그럴 여지도 없다. 물론 우리 제품중에는 정밀 소총도 여러개 포함되어 있지만 순수하게 군사용으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일은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다.

그러한 사업은 민수 시장(스포츠 및 수렵)에서 굳건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회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서는 대량 생산되는 민수 화기를 기반으로 하여 군사적인 저격 소총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Remington사는 이 방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동사의 Series 700 노리쇠 작동 모델은 미국군이 채택하였다"고 말하였다.

■ 정치적인 면

마치 세계 소화기 시장의 미래가 아직은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은 것처럼 정치적인 요인들도 이 북새통에 가세하려는 위협을 하고 있다.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우선 아프리카부터 시작하여 소화기가 내전, 인종/종족 갈등이나 폭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소화기 교역을 금지하는 제안을 하였다.

아난 총장은 대인지뢰 외에도(이는 성공적인 국제 캠페인에 의해 이미 금지되었다) 강습 소총, 기관총,

기관단총, 피스톨 및 유탄 발사기 등이 저항도 분쟁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주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갈리 전임 UN 사무총장은 현재 7가지 주요 무기체계(장갑전투차량, 전투기, 군함 등)를 포함하고 있는 UN 군사교역등록부에 소화기 교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이 소위 "같은 방향의"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의심할 나위없이 Kyrgystan지역의 잉여분에서 AKM을 판매하는 상인은 미래 UN 금지조치의 정신과 문서를 엄격하게 존중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허가된 시장에서 그가 체결할 수 있는 거래의 정확한 사항들을 UN 등록부에 적절하게 보고할 것이다.

이제 이 글 첫머리의 수수께끼같은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것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소화기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요리법에서 햄버거와 같은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MILTECH〉'98. 10, pp.8~14



▲ 소음기가 장착된 H&K사의 MP-5SD5 소총